

긴 후회보단 찰나의 부끄러움을



김채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1

긴 후회보다 찰나의 부끄러움.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용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용기’를 제목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교환학생을 앞둔 학생의 심리는 용기보단 부끄러움에 더 가까울 것이다. 교환학생에서 용기를 내 본 입장에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까지 하고 싶은 것을 이뤄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교환학생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홍콩으로 향한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표는 좋아하는 ‘축구’를 현지에서 부딪히며 많이 해 보자는 것이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흔한 이유에서 비롯된 목표였다.

오리엔테이션, 개강, 기숙사 활동, 여행 등으로 숨 쉴 틈 없이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정작 가장 원했던 걸 하지 못한 채로 3주 차가 시작됐다.

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 것 같았다. 캐리어에 챙겨 온 축구화를 들고 기숙사 앞 공원으로 향했다. 나오긴 했지만,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기 민망해 30분을 서성였다.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냈고, 혼자 공을 가지고 나온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을 걸었다. 다 지나고 보니 어렵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땀뻑하고 부끄러웠다. 이것이 브라질에서 온 20살 ‘펠리페’와의 첫 만남이었다.



매주 한 번씩 진행된 HKBU 축구회 사람들 (왼쪽 위에서 2번째가 필자)

흔히들 음악이 세계 공용어라고 하듯, 축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급속도로 친해진 펠리페는 알고 보니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축구로 이어진 인연 덕분에 다음날부터 학교에서 함께 어울렸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문외한이었지만, 펠리페가 알려준 ‘진짜 브라질’은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축구가 브라질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 준 열정적인 ‘스피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축구를 하고 싶지만 찰 곳이 없던, 다시 말해 같은 편이었던 펠리페와 나는 우리와 같은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라며 사람을 모으기로 했다. 인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모여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성취감 또한 들었다.

대학의 친구들과 축구를 했던 경험은 홍콩 조기축구회 가입까지 인도했다. 축구를 할 때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나를 열심히 뛰었는데, 이 때문인지 축구를 하며 친해진 친구 소개로 현지 조기축구회에 가입할 기회도 생긴 것이다.

조기축구회에 들어가고,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매주 2번 해피밸리 실내 축구장에 갔다. 해피밸리는 수요일마다 열리는 홍콩의 유명한 경마장이다.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도 매주 찾는 홍콩의 핫플레이스다.

축구장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린다는 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소통

이 어렵다는 점 등 극복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조기축구회에 소개해줬던 친구가 얼마 안가 중국으로 떠나는 일도 있었다. 부끄러움 그리고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원했던 것이기에 이런 순간마저 꿈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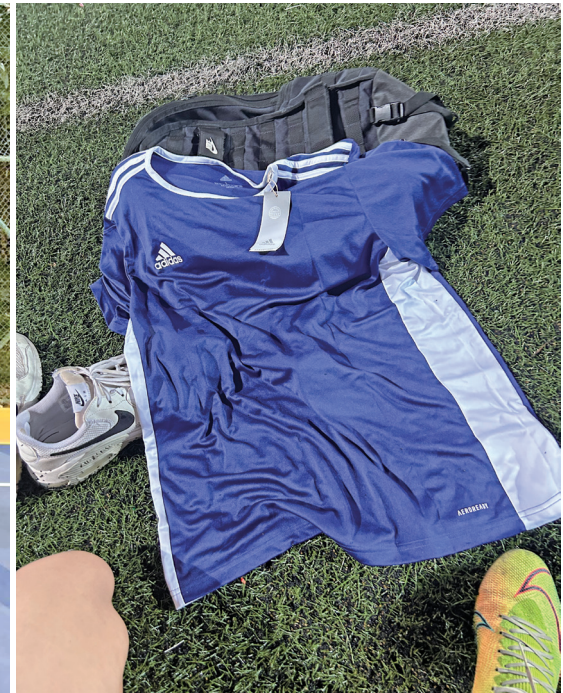
홍콩을 떠나기 전, 마지막 조기축구회가 기억에 남는다. 회장이 나를 불러 “You deserve this”라 말하며 단체 유니폼을 준 적이 있다. 그 순간, 홍콩에서 경험한 어떠한 감정보다도 깊은 감동이 소용돌이쳤다. 그 전에도 외국인에게 유니폼을 주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부러워했었다. 하지만 정작 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감동의 크기도 더 컸다.

공을 차 때마다 떠오른 순간이 있다. ‘혼자 축구화를 가지고 공원에

나온 그 순간, 펠리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다. 흔히 말하는 ‘그깟 공놀이’로 교환학생 한 학기가 이렇게 풍성해졌다.

취미를 즐기는 것뿐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하며 언어, 다양한 인맥 등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처음에 정한 ‘축구’라는 목표가 지금은 마냥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교환학생이 끝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교환학생을 앞둔 사람에게 교환학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관한 질문도 곧잘 받는 요즘이다. 작은 용기로 얼마나 큰 행복을 얻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끄러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 부디 큰 행복을 얻을길 바란다.



조기축구 회장에게 선물 받은 티셔츠 (사진=김채원씨 제공)

2024-2학기 경희목련장학

- 신청기간 : 2024.10.01(화) ~ 2024.11.10.(일) (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격 : 2024-2학기 현재 학부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사고, 질병, 부모님 실직, 재해, 기타 예상하지 못한 가계곤란으로 인하여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학기초과자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info21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4-2학기 경희목련장학] 신청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신청하기